

2023년 4월 30일(가해)

# 천주교 캔버라대교구 한인 성당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Archdiocese of Canberra and Goulburn

## (백) 부활 제 4 주일 (성소 주일)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 안드레아  
 주일미사 : 오후 3시  
 고해성사 : 미사 전 30분  
 유아세례 : 이메일로 문의 주세요.  
 (이 메 일 : canberra.kcc@gmail.com)  
 주 소 : South Belconnen Parish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안내전화 : 0490-795-346  
 홈페이지 : <https://www.kcccanberra.org/>  
 성모님과 함께 하는 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19:00, 온라인(Zoom)  
 퀸비안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일시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 3 West Ave, Queanbeyan, NSW

### [ 교황님 기도지향 - 4 월 ]



복음화 지향 : 평화와 비폭력의 문화

*For a non-violent culture*

국가와 시민이 무력에 의존하지 않고  
 평화와 비폭력의 문화를 널리  
 퍼뜨리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전례**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목자의 비유를 드시며 당신을 '양들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오늘 '성소 주일'을 지내며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성직과 수도 생활을 지망하는 이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늘 귀 기울이도록 기도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이 미사에 참여하며 주님께서 한국 교회에 풍성한 성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한마음으로 청합니다.

**제1독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2,14ㄱ.36-41  
 <하느님께서서는 예수님을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화답송** 시편 23(22),1-3ㄱ.3ㄴㄷ-4.5.6 (◎ 1)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려라.

**제2독서**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 2,20ㄴ-25  
 <여러분은 영혼의 목자이신 그리스도께 돌아왔습니다.>

**복음 환호송** 요한 10,14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 알렐루야.

**복음**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0,1-10  
 <나는 양들의 문이다.>

### 영성체송

한 목자, 당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네. 당신 양 떼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네. 알렐루야.

### 영성체 후 묵상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양들은 목자의 목소리를 알기에 낯선 이를 따라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가끔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운 인생의 갈림길과 유혹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의 품에 머무른다면 참된 삶의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 **오늘의 복음 묵상 - 정진만 안젤로 신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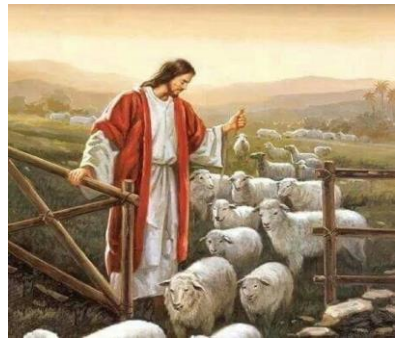
**목자**

목자에 관한 예수님의 담화는 오늘 복음에 앞서 소개된 예수님과 바리사이들의 논쟁(9,40-41)에서 시작됩니다. 바리사이들은 자신들이 눈먼 자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잘 보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모든 지식을 지니고 있다는 자기만족과 교만으로 그들은 죄인으로 단죄받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죄에 머물러 있는 바리사이들에게 목자에 관한 이야기로 가르치십니다.

먼저, 목자에 관한 비유에서는 서로 다른 두 부류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도둑과 강도'입니다. 그들은 양 우리로 들어갈 때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넘어 들어가 양들을 훔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다른 부류는 '양들의 목자'입니다. 목자는 도둑이나 강도와는 달리 문으로 들어가서 양들의 이름을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 양들은 그를 따릅니다. 이처럼 목자가 양들에게 가는 이유는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비유에 이어지는 가르침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양들의 문'으로 계시하십니다. 앞선 비유에서 '문'은 양들이 드나들 수 있는 곳으로 상징되었고, 이제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문'으로 소개하십니다. 양들은 '양들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좋은 풀밭으로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양들의 생명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주시는 중개자이십니다. 여기서 도둑과 강도는 예수님과 대립하는 바리사이들을 가리킵니다.

오늘 복음은 '양들의 목자'이자 '양들의 문'이신 예수님을 조금 더 바라보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그분의 안내를 받을 수 있고, 그분을 통하여 풀밭으로 들어갈 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목자이신 예수님뿐이십니다.



**| 부활 제 4 주일 (성소 주일) 복음 필사 |**

내 마음의 성경  
한구절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잃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요한 10,10)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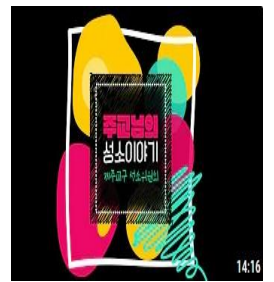
'착한 목자', 바르톨로메 에스테반 무리요 作

※이번 주일 복음을 읽고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직접 필사해보세요.



**성소 주일 - 성소란 무엇인가?**

해마다 부활 제 4 주일은 '성소 주일'입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인 성소(聖召)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사제, 수도자, 선교사 성소의 증진을 위한 날이다. 성소 주일은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가 진행되던 1964 년 성 바오로 6 세 교황이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 주십시오 청하여라."(마태 9,37-38) 하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정하였습니다. 이날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소를 계발하고 육성하는 일에 꾸준한 기도와 필요한 활동으로 협력해야 할 의무를 일깨우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지 클릭]  
문창우 비오 주교님의 '성소이야기'

**2023년 노동절 담화 - 노동과 휴식을 통하여 하느님을 닮아 가야 하는 인간(「노동하는 인간」, 25 항 참조)**

김선태 주교님(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노동절을 맞이 하여 위의 주제로 담화문을 발표하셨습니다. 1890년 5월 1일 전 세계 노동자가 하루 8시간 노동을 주장하며 거리로 나섰던 역사적 배경을 소개하시면서 교회는 1891년에 회칙 「새로운 사태」를 반포하며 비인간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과중한 노동을 비판하는 동시에 적절한 노동 시간과 휴식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를 끊임없이 옹호하여 왔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주교님은 하느님께서 '종과 이방인 심지어 가축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다.'(신명 5,14 참조)고 말씀하셨다며 노동 시간 단축과 정당성은 성경 가르침에서 시작되었음을 상기하셨습니다. 덧붙여, 노동하는 인간에게 휴식은 하느님의 선물이자 누구나 동등하게 누려야 하는 권리이며 휴식은 노동으로 소모된 체력과 더불어 무디어진 정신의 보호와 회복이라는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 사랑이라는 공동체적 차원을 위해서도 필요함(「어머니요 스승」, 250 항 참조)을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노동 현실은 노동 시간의 양으로 생존하는 구조이며 밤낮으로 쉼 없이 일하여야 살아갈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노동자는 그렇게 노동을 하여도 '품위 있는 가정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기'(사목 헌장 67 항 참조)는 커녕 자신의 생존마저 위협받는 경우가 많으며 노동자가 자신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임금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노동자에게 정당한 휴식권 보장과 함께 휴식으로 노동 시간이 단축되더라도 노동자가 살아남을 정도의 임금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임금을 보장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정부는 노동자의 존엄과 권리를 침해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인 원청-하청, 대기업-영세 기업 그리고 소상공인 등의 관계 안에 존재하고 다양한 고용 형태에서 종사하는 노동자가 경험하는 불공정하고 탐욕적인 거래 구조와 다양한 방식의 중간착취 등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주장하셨습니다.

주교님께서서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의 창조와 구원 사업에 동참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 안에서 교회의 형제적 연대로 위로를 보내시고, 더 합당한 휴식과 여가를 누리며 노동자 자신과 그 가족이 더욱 행복해지기를 간구하셨습니다. [담화문 전문] <https://tinyurl.com/5y9ecvh8>

**2023년 어머니의 날 행사 참가자 모집**

- 일시와 장소 : 5월 12일(금요일) 오전 11시(성당에서 출발) ~ 오후 2시(와이너리에서 출발)  
Shaw Wines & Olleyville Restaurant (34 Isabel Drive Murrumbateman NSW 2582)
- 신청 : 소속 소공동체 반장님께 4월 30일(주일)까지 (※ 소공동체 미소속시 서은주 데레사 자매님께 신청)
- 성당 지원 : 와인 시음비용(1인당 \$5 불) 및 단체이동차량(성당↔와이너리 왕복 구간)



| 부활 제 4 주일 (성소 주일) 주간실천 |

**피조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46**

도시락을 싸서 출근해보기  
(자료 제공 \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8CK)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탄소발자국 줄이기 30**

스마트폰 스트리밍 대신 다운로드  
한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은 자동차 1km 탄 것과 같아요.  
(자료 제공 \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8CK)

**성도미니코선교수녀회**  
1 강 길을 떠나면서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안소근 수녀의 구약 종주 |  
구약의 전체적인 구성을 훑어봅니다.

**성경과외 해주는 신부**  
[가톨릭성경통독 34 강]  
모세에 비견되는 지도력을 보여준  
철의 여인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판관기 2부 | 4-5 장

**cpbcTV 가톨릭콘텐츠의 모든 것**  
과학 만능주의는 가톨릭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김도현 바오로 신부 |  
가톨릭 둘레 특강#1

□ 미사 참례자수

4월 16일	교구 다문화 미사	4월 23일	성인 54 아이 18
--------	-----------	--------	-------------

□ 우리들의 정성 (4월 22일(토)~28일(금))

권요순	서진원	손재호	안영규	양홍석	이명진	이지영	장호훈
전인철	주정자			교무금 \$545 (10 가정) / 봉헌금 \$350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 BSB: 062786 / Account Number: 000027424

□ 봉사자 안내

	4월 30일, 부활 제 4 주일 (성소주일)	5월 7일, 부활 제 5 주일 (생명주일)
독서	주정자 루치아, 이민정 글라라	이상명 다니엘, 이명진 이사악
예물봉헌	마태오반	요한반

○ 미사 후 성당 뒷정리: (30일) 마태오반 → (5월 7일) 요한반 → (14일) 루카반 → (21일) 마르코반

○ 미사 후 다과·친교(매월 첫째주 식사, 셋째주 간식): (5월 7일) 요한반 → (21일) 요한반

□ 미사성가 안내 (가사/악보 보기, 듣기, 다운로드 - 링크 클릭)

	입 당	예 물	영 성 체	파 견
4월 30일	51 <a href="#">주 나의 목자되시니</a>	221 <a href="#">받아주소서</a>	175 <a href="#">이보다 더 큰 은혜와</a>	132 <a href="#">감사의 송가를</a>
5월 7일	138 <a href="#">만왕의 왕</a>	512 <a href="#">주여 우리는 지금</a>	175 <a href="#">이보다 더 큰 은혜와</a>	129 <a href="#">알렐루야 노래하자</a>

♡ 권요순 소피아(4월 30일, 요한반), 김수영 소피아(마르코반), 안영규 필립보(5월 3일, 요한반), 전현우 필립보(청년), 조민재 도미니코사비오(5월 6일, 청년)님의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